

제15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전시 <용적률 게임: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 개막

July, 2016

제15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전시 《용적률 게임 :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 개막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 위원장 박명진)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미술계 행사 중 하나인 베니스비엔날레 제15회 국제 건축전의 한국관 전시를 2016년 5월 26일 이탈리아 베니스 현지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커미셔너를 맡고 서울시립대학교 김성홍 교수가 예술감독으로서 총괄하여 준비한 한국관 전시는 2016년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의 전체 주제인 '전선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에 대응하여 지난 50년 동안 서울의 변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키워드이자 집단적 욕망을 드러내는 지수(指數)인 '용적률'을 한국 건축의 최전선으로 해석하였다.

한국관 전시 주제인 《용적률 게임: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The FAR (Floor Area Ratio) Game: Constraints Sparking Creativity)은 지난 50년동안 '건설한국'의 동력이자 한국인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용적률을 향한 욕망을 사회경제적, 일상적, 창의적 관점에서 조명한 전시이다. 한국관 예술감독을 맡은 김성홍 교수(서울시립대 건축학부)는 신은기(인천대 교수), 안기현(한양대 교수), 김승범(브이더블유랩 대표), 정이삭(에이코랩 대표), 정다은(코어건축 팀장) 공동 큐레이터와 함께 지난 5개월 동안 공동 작업을 해왔다.

이번 전시는 작가나 작품을 부각하는 일반적 전시와 달리, 김성홍 예술감독 및 5명의 공동큐레이터가 기획자와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참여 작가인 특징을 갖고 있다. 전시팀은 용적률 게임의 대표 사례로 36개의 건축물을 선정하고 건축가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과 시각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강성은, 백승우, 정연두, 신경섭, 정진열, 최재은 등 시각예술작가와 그래픽 디자이너를 초대하여 전시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했다. 이번 전시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의 프리뷰 기간을 거쳐 5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제15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내부
© Kyungsub Shin Studio